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 일체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알고 가야!

진주에서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합해 한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여기 회장님으로부터 부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본다면 모두가 각자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든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 한생각을 잘하면 인체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이 같이 따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라 주기 때문에 한생각 내기가 그렇게 어렵단 얘깁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쁜게 들어오는 걸 좋게 생각을 돌려서 그 자리에 입입하라고 했습니다. 몸속의 의식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인데,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업보성 윤회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없어지는 까닭에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한 까닭에 부처는 편안하디 이 소립니다. 내 몸이 편안한 것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중생들이 작용을 잘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하여튼 사람이 마음내는 대로 의식들은 그 몸속에서 모두 그대로 따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명어리는 심력만 배출할 뿐, 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선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태양열도 그렇지만 전력도 우리가 크게 끌어 쓰려면 크게 끌어 쓰고 작게 끌어 쓰려면 작게 끌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다 주어지듯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에너지명어리 하나가 있는데,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그 에너지를 빼 쓴다면 그대로 그냥 배출이 되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선으로 나가는 데도 또 그것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한마을에 일체를 다스려 주는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하는 대로 입력이 되고 선하게 하면 선하게 하는 대로 입력이 자동적으로 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자기가 현실에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미래에 올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죄를 안 짓는데도 왜 이렇게 고가 많고 병고가 많고 애고가 많은가 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네가 과거에 한 것을 대충 짐작하리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가만히 본다면 미래에 또 어떻게 올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교가 중요하듯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수십억의 의식들이 모두 나가서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도 흑성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요. 그러면 몸에도 대기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몸속의 의식들이 다 나가서 작용들을 하나씩 맡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나씩 맡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악연을 가져오게 돼 있고, 세균성을 끌어들이어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영계성을 끌어들이어서 정신병자로 만들 수도 있고, 유전성을 끌어들이어서 그냥 복잡하게 2대 3대가 가도록 연방 같은 병증세 또는 애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공자에 공자를 물고 일어나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권에서 모든 것을 통신하는, 들여보낼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는 통신력을 가지고 있기거든요. 내 마음을 한번 잘 쓰면 두뇌로 배출이 돼서 두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내 몸뚱이 하나가 움직여가는 것을 본다면 전체 우주 움직여가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이 49년을 살하시며 가르치실 때도 그러셨지만 본래 불교는 생활 자체 그대로입니다. 목탁 두드리고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하나도 빼놓는 게 없이 전체가 다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49년을 부처님께서 살하실 때는 너희가 마음을 깨달아서 본다면 내 마음도 꿰뚫어볼 수 있느니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들어 안나면 까닭에 일체 모든 생명들의 마음이 들어 안나면, 그러기에 한도량이지요. 모두 각자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이름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에 공생 공용 공체 공심화하고 돌아가는 진리입니다. 그러셨던 겁니다.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 하나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불(佛)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이요, 불! 또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정신계나 물질계가 한데 합쳐



그림 · 최주현

서 작용하면서 돌아가고 통신이 되고 모두 교류하고 돌아가는, 말하면서 돌아가고 생각이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이러한 것이 교(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이며 공체며 공심화하고 공용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것만 불교가 아니라 전체 생활의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상이 전부 한데 합쳐서

돌아가되 (법상을 짚으시며) 이런 거 하나도 버림이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날뛰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까 이런 것도 돌아가고 있죠. 모두가, 하나도 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사는 그 자체가 불교라 이겁니다.

종교가 많지만 그건 모두 이름일 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내 사찰 네 사찰

하고 싸우고들 야단들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넓게 생각을 못해서일 겁니다. 계정해(戒定慧)를 왜 만들어 놔습니까? 계율과 질서를 참으로 지키려면, 즉 잘못되는 걸 다스리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모두 정예다가 같이 놔라 이겁니다. 물리가 터지고 지해가 있는 것도 다 정예다가 놔서 같이 한마을으로 그거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자유인의 길이라는 얘깁니다.

불교라는 자체가 그냥 여여하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습니다. 낮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으니 어느 거 하나 높지 않은 게 없느니라 해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겁니다. 어느 가정든지 내 남편이 높고 내 자식이 높듯이, 또 바다에서 보면 뱃사공이 높고,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꾼이 높고, 정치하는 데 가면 정치인이 높고, 모두가 하나도 높지 않은 게 없죠? 산도 높은 게 있으니까 낮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니까 높다고 하지 낮은 게 없는데 어떻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평등한 진리며 모두가 들어 안나 도리입니다.

외국에 나가 봐도 그렇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항상 기쁘게 타의에서, 꼭 상대를 놓고 믿어요. 상대를 놓고 찾아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대 성인들, 역대 조사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더 믿고 너무더 알아야 가설되어 돌아가는 이 세상의 법계를 알고 우주의 섭류를 아느니라.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딴고 종교가 어딴것느냐? 너무더 알라 했는데 모두들 상대를 놓고 하나를 찾고 주를 찾고 부처를 찾고 온통 야단들이예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도 당신네가 상대를 놓고 비는 이상 노예로밖에 살 수 없다. 가르치는 사람도 노예로 배우는 사람도 노예일 뿐이지 자기 소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소크라테스도 그랬지만 말입니다. 모두들 미거한 탓에 그렇게 의인을 죽여야만 했던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행상을 믿겠습니까,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겠습니까? 또 이름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허공을 믿겠습니까? 믿 믿어안되죠? 어느 분이 한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내 주먹만 믿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것도 좋지만 내 주먹을 믿는다면 펴 줄도 알고 쥘 줄도 알아야만이 진짜

26면으로 계속

##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패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패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회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패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패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패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패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특패불(大·中·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 품목** 단청, 탱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리아기회** 상담전화: (02)714-7253 / 010-9939-5412

## 태용 문화재 고 건축

최저예산으로 전통을 거르지 않고 책임시공, 관리,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 木手 - 사람들이 절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 ◆ 木壽 - 전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에 목숨을 불어 넣는 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집을 짓는 전 木壽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 : 대웅전(3포, 5포, 7포등), 요사채, 범종각, 삼성각 등 작은 일이라도 제가 주어진다면 정성을 다해 내집 처럼 짓겠습니다.

도 편 수 : 이형찬 할장 H·P 011-9515-5587 / 공장 055) 852-5537 (팩스겸음) 경남 사천시 서포면 궁항리 840-4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합니다.